

“언어 혼동 이겨내려 모국어로 된 책 꾸준히 읽어요”



한혜영 시인

미 시어를 겨루 한혜영 시인, 동시집 ‘치과로 간 빨래집게’ 펴내
2020년 ‘동주해외작가상’ 수상...시조·동화·소설 등 21권 발간
“각종 문학상·정부 지원금 등 해외 작가들에게도 기회 있었으면”

“이민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생각이 안 나는 모국어가 점점 늘어납니다. 나이 탓도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언어적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내려 모국어로 된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겠지요.”

지난 2020년 동주해외작가상을 수상한 한혜영 시인. 광주일보와 시 전문지 ‘시산맥’이 공동 운영하는 동주해외작가상은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다. 한혜영 시인은 당시 “청소년 시절에는 운동주의 해맑은 영혼에 매료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나라를 잃고 괴로워하는 운동주의 함께 했다”며 “이민을 와서는 디아스포라의 무게감이 더해진 감정으로 운동주의 시를 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한 시인이 동시집 ‘치과로 간 빨래집게’ (상상아)를 펴내 이목을 끈다.

90년도에 이민을 와서 플로리다에서 34년을 거주한 그는 시, 시조, 동화, 소설 등 장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작품을 펴냈다. 무려 21권의 창작집을 발간한 것. 그는 “21권이 되는 책을 펴낸 것은 ‘귀국’과 무관치 않다”며 “출간을 핑계로 그리운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겠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밝혔다. 현재 시인은 두 달 전에 플로리다에

서 시애틀로 이사를 해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기사는 이메일을 통해 한 시인과 작품집 발간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동시집을 발간하게 된 계기를 비롯해 근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답을 들었다.

그는 “책만 읽으면 국내 작가로 알 정도로 사람들이 신기해한다. 특히 시에서는 외국 남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한국방송을 보고, 한국 신문을 읽고, 한글로 된 책을 읽고, SNS에서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모국어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창작활동은 이민을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인 1994년 ‘현대시학’ (11월호)에 시가 추천되면서다. 1996년에는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됐으며, 이에 앞서 1989년 ‘아동문학연구’에 동시조가 당선되면서 다양한 장르에 걸쳐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동시집은 흔한 소재임에도 시인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동시집이라는 장르로 묶었지만 온 가족이 읽을 수 있는 시집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각자의 느낌이



나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해요. 동식물과 눈, 비, 구름 등 자연과 환경문제를 비롯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시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시인의 눈에 포착된다고 다 시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시인은 이번 작품집을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소 동화까지 쓰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해 재미있게 형상화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작품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동시집에 담긴 그림이다. 정하윤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그림을 그렸다. 한 시인은 “시를 이해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며 “시인이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잘 표현해 줘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동시집을 펴내게 된 것은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죽어가는 아기 새를 치료해 주 것이 계기가 됐다. 시인에 따르면 기쁜 숨을 활짝거리는 아기 새를 데리고 돌아와 물을 먹이고 미숫가루를 타서 주사

기로 먹었더니 다행히 기운을 차렸다. 아기 새는 다른 새의 소리를 흉내 내기도 할 만큼 똑똑한 새였다. 이름을 ‘뚝순이’라고 지어주었고 얼마 후 뚝순이를 자연으로 날려 보내주었다.

“나이 많은 집게들은/ 늙은 사자처럼 이빨이 시원치 않다/ 먹잇감을 사냥할 때의 젊은 사자처럼/ 짹! 물고 있어야 하는데/ 빨래가 조금만 몸부림쳐도 놓쳐버린다// 주인아줌마가 그런 집게들은/ 속속 골라서 치과로 보내버리고/ 우리처럼 탄탄한 이빨을 자랑하는 집게들은 쉬는 날이다...”

위 표제시 ‘치과로 간 빨래집게’는 수명이 다한 빨래집게들이 모티브다. 치과로 보내지고 아직은 쓸 만한 집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쉬고 있다. 빨래집게를 통해 우리 삶의 어떤 단면을 비유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한편의 맑은 동화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한 시인은 “뚝순이가 세상 속으로 훨훨 날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시들을 세상으로 날려 보낸다”며 “많은 독자를 만나 아름다운 노래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한편으로 그는 해외에서 문학을 하는 작가들이 본국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는 것 같아 때론 속상하다고 했다. 수준 있는 문학과 정부 지원금을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세계 곳곳에 사는 작가들이 그곳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생생한 문학작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쳐놓아서 해외 작가들이 많이 위축이 되죠. 큰 틀에서 해외작가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신부부턴’·‘창극 황후 심청’ 앙코르 국악상설공연

매주 일요일 광주공연마루

조선의 백성들 사이에서 ‘노총각, 노처녀’ 때문에 전제지변 등 국가 위난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돈다. 왕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난한 닷에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김희집’, 무뚝뚝한 노처녀 ‘신연례’를 혼인시키려 고민하는데...

지난해 국악상설공연 공모작 중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이 앙코르 공연으로 다시 돌아온다. 광주예술의전당 (이하 전당)이 ‘2024 광주상설공연’ 국악상설공연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민로3)에서 연다.

먼저 4. 11일에는 예라의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턴’을 볼 수 있다. 조선 정조(1776-1800) 때 이덕무가 창작한 고대 소설 ‘김신부부사혼지’를 바탕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혼수 준비가’, ‘기우제’, ‘떡타령’, ‘세 사람의 소원’ 등이 울려 퍼지며 무용, 타악, 연극, 미디어아트 등이 어우러진 종합극이다.

아울러 18. 25일에는 향산주소리반소리보존회가 ‘창극 황후 심청’을 선보인다. 심청의 탄생부터 성장 이후 임당수로 향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샌드아트가 공연의 막을 연다. 이어 국악 연주에 어우러지는 창극, 연꽃무, 애니메이션 등이 펼



‘조선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턴’

〈예락 제공〉

쳐질 예정이다. 심청이 황후가 되는 전개는 효, 희망 등을 떠올리게 한다.

소리꾼 주소연은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향산주소리반소리보존회 대표다. 한양대, 전남도립대 등에 출강 중.

박은비 예락 부대표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독신과 비혼 등 오늘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올해도 상설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석 무료. 티켓링크 및 전당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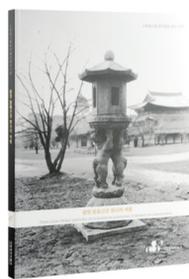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과 삼층석탑 (교토대학 소장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자료, 촬영연대 미상)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1-가련유사’ 국립광주박물관 지역학 연구 성과물 발간

국립광주박물관 본관에 전시 중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국보)은 통일신라시기 불교 석조물로 군제미와 조형미가 뛰어난 유물이다. 당초 이 쌍사자 석등은 광양시 율봉면 율봉리 중흥산성 내 폐사지에 조성돼 있었다. 1990년 8월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관됐는데 그 과정과 복원 등에는 지난한 시간이 있었다.

당초 쌍사자 석등은 1931년 4월 산림 소유주가 일본인에게 유물과 산림을 매각했다. 이후 일본인 소유주는 대구로 반출하려 했지만 면민과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한다. 한동안 율봉면사무소 옆에 방치돼 있다가 안전상 이유로 1932년 2월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이전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예령)이 광양 쌍사자 석등이 이관되기까지의 과정, 복원 등을 담은 연구서를 발간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그중. 또한 광주 박물관은 조선 후기 차 문화사 등을 알 수 있는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1-가련유사’도 발간했다. (사진) 지역학 성과물인 두 권의 연구서는 지역의 유물과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



된다.

먼저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에는 암석학적 분석을 비롯해 디지털 복원, 손상 지도 등이 담겼다. 분석 결과 석등 축조에 사용된 암석이 섬강암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3차원 가상 재조립 모델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 부분도 소개했다.

‘가련유사’는 초의선사를 비롯해 다산 정약용의 제자들이 1818년, 1819년 시회를 연 내용을 엮은 야회록이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호남의 유학자나 대흥사 승려들이다. 책은 당대 호남지역 인물들이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 시를 짓고 차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집은 조선 후기 문화사와 차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

노형신 학예연구사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석등의 구조는 물론 미술사적 가치, 과학적 분석 결과를 수록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가련유사’는 지난 2021년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이 박물관에 기증한 초의선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첫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낮의 태양은 캄캄한 밤이 되면 어디에 숨는 걸까?

ACC재단, 9~10일 인형극 ‘세 친구’

밤에 태양은 어디에 숨는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 새끼염소, 아기양, 송아지는 한낮의 태양이 밝이 되면 왜 지구를 감추는지 궁금하다. 이들은 어느 날 직접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태양을 찾아 떠나는 ‘세 친구’의 모험담을 그린 인형극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인형극은 지난 2020년 초연 이후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를 비롯해 춘천인형극제, 종로 가족극축제 등 유수의 축제에 초청돼 갈채를 받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9일, 10일 어린이인형극 ‘세 친구’를 선보인다. 작품은 카자흐스탄 유목민들의 민화 ‘세 친구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총 3회 공연되며 어린이작가 실험실 겨울방학프로그램 ‘빛나는 유르트’ 수강생은 30% 할인)

세 친구는 목동의 눈을 피해 태양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여정 중에 송아지가 물에 빠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다. 고군분투 끝에 우연히 도착한 유르트(텐트)에는 늑대가 숨어 있었다. 이들은 과연 무사



태양을 찾아 떠나는 ‘세 친구’의 모험담을 그린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히 태양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성국 팀장은 “작품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아기 동물이 풀어나가는 여행극 형식으로 구성됐다”며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석 1만5000원. 36개월 이상(2021년 2월 출생자까지) 관람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